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三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英佛回答、白政府에到達

恒久的平和保障이 紛爭解決의絕對條件

英皇帝죠지六世의回答文全文

【브랏셀十二日發同盟】레오폴드三世及윌헬르미나女皇의 和平提議에對한 英皇帝죠지六世及佛大統領루부랑氏의 回答이 十二日브랏셀에到着되어 곳白耳義政府에 送達되엇다 政府는 이回答에對하여 愼重檢討를 加하기로되엇는데 同時에 스파-크外相을 海牙에派遣하여本問題에關하여 和蘭政府當局과 協議케하기로 決定되어 스파크外相은 協議를마추고 十二日夜半이나 十三日朝에 歸國할豫定이다

【암스테르담十二日發同盟】白耳、蘭兩國元首의 和平提議에對한 英佛兩國의回答은 十二日 스파크白耳義外相及크레펜스和蘭外相은 十二日 白蘭國境附近의 부르다에서 會見하고 更히平和努力을 繼續할는지 그與否에對하여 協議하엿다

【倫敦十二日發同盟】英國皇帝죠지六世께서 十二日 白、蘭兩國元首에게 寄한 回答은 다맛 그 冒頭에 多少의差가 잇슬뿐으로 本文은 거의同一한것인데 白耳義國王 레오폴드三世에보내신 回答全文은 如左하다

余는 지난 七月十一日 陛下와 和蘭女王陛下의 余에게 보낸 要請에關하여 英國本國과 加奈陀、濠洲、뉴질랜드、南阿聯邦諸政府와 愼重히 檢討하고 余는 지난八月二十三日 陛下께서 오슬로協商國 元首名義로서 當時의紛爭과 要求를各國協力下에 公開商議에 附하기를 要請한것을 想起한다 이 要請에 對하여 我英國政府와 佛國政府는 贊成인旨를 回答하엿다 更히 余는 八月二十八日陛下와 和蘭女王陛下께서 余의 政府及 佛國、獨逸、伊太利、波蘭諸政府에 對하여한 調停提議를 想起한다 그러나提案은 余의 政府及 佛國、伊太利、波蘭 各政府가 歡迎하엿스나 數日後에는 獨政府는 波蘭에 對하여 挑發치 안흔 戰爭을 開始하여 모든 努力을 破壞하엿다 余의 政府는 陛下의 提案에 精神的으로 深切한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恒常 公正한 平和에對한 合理的 目的인 基礎를 研究할 意思를 가지고 잇다 戰爭은 絕對的으로 必要치 안흔以上으로 一日이라도 길게 繼續할것이 아님은 余가 恒常 希求하고잇는바이다 따라서 余는 陛下의 提議에 對하여 다음가치 回答할수가잇다 右提議에서 陛下께서는 兩者間에 和平하여야할 協定事項에 關하여 이를打診할 意思가잇는 것을 表示하섯는데 光榮잇는 平和의 確立에 關하여 必須不可缺이라고생각되는 條件에 關하여는 吾等은 明確히이것을말하엿다고 생각한다 戰爭開始以來 我等이 交換한 諸文書는 戰爭이 發生한原因을 明示하고 또戰爭勃發의 責任이 那邊에잇는가를 明確히 하엿다 余의國民은 平和를 要望하기때문에 안코 武力에 依하려는 것을 避하기위하여 온갓努力을試한後 비로소 武器를잡은것이다 英國이 開戰을 決意하게된 直接原因은 獨逸의波蘭侵略이엇다 그리고 이侵略은 獨逸이隣接諸國에對하여 取해온 政策의새로운 一例에不過하다 余의國民이 現在싸우고잇는 큰目的은 只今의 本國首相의 言明한 條件에 잇는 것과 가티 侵略의 脅威에서 歐洲를 救하여 歐洲諸國으로하여금獨立과 自由를 維持시키고 나아가서 將來國際紛爭의 解決에 잇서 平和的手段에 依치 아니하고 武力에 依하려는 것을 阻止함에잇다 이目的은 從來 屢次機會에 强調되어 온바이다 特히 지난十月十二日英下院에서한 체임벌린 首相의 聲明과 十一月二日上院에서한 할리팍스外相의 聲明에 明示되어 잇다 모든 國際問題解決에際하여 余의政府가不可缺의 要件으로하는바는 前記聲明에서發表하엿다 따라서 萬若陛下께서 余에對하여 恒久的平和를 招來할수잇는 獨逸의 어떠한提議를 通達하시면 余는余의政府가 곳右提議에 對하여 眞摯한考慮를 할것을 確約하는 바이다 (寫眞은 英皇帝陛下)

문에 이에應하여 가튼措置에나 오것으로 解釋된다 今番通達은 外交的제스추어에 不過하는것으로 和平調停實現可能性은 거의업는 것으로보인다

和平與否決定할者는 佛國이아니고獨逸

루부랑佛大統領의回答文

【巴里十二日發同盟】十二日루부랑大統領이 白蘭元首에게보낸回答全文은 如左하다

共和國政府及佛國國民은 今番레오폴드三世、윌헬미나女王兩陛下께서 和平調停을 提議하신崇高한 御考慮에對하여 深甚한敬意를表明하는바이다 元來佛國國民만치 平和的國民은 업다 佛國國民만치 歐洲平和를爲하여 犧牲을바친者는업다 佛國은 過去現在를通하여 世界各國의 共通目的인 恒久的平和를確保하기 爲하여는 가진方途를 歡迎하고 잇는바로 이것은 이미 我等이 言明하엿고 또 現在에도 痛感하고잇는바로서 正義에 立脚한 平和만이 結局 恒久性잇는 平和이다 佛國이 今番 武器를 잡고 선 理由는 過去三個年間에 亘하여 가장神聖한協定을 蔑視하고 誓約을破棄하여 歐洲의三國을奴隷化 又는滅亡하고更히 今日各國民의 安全을威脅하려고하는 暴力行爲를 永遠히絕滅하기 爲함이다 따라서恒久的平和는 墺太利、체코슬로바키아 波蘭에對하여 行한不正不義를 바로잡어야 비로소將來할것이다 그리고또 平和는全國民의自由尊重에對하여 有効한 保障이 잇슬때에 비로소恒久的이 될수잇다 國民은權利侵害가 爾後一切禁止된다는保障을어더야 困苦와不安에서解放될것으로써 如何한解決도萬若不正함에對하여 勝利를주는 것과가튼 解決을한다면 兩陛下께서 今番勸告하신 正當且遺憾업는 平和와는 全然無關係할뿐아니라 不安定한休戰을 歐洲에 招來할뿐일것이다 따라서 平和에對한 同意與否를宣言할者는 佛國이 아니고 獨逸이다 그리고 이平和는 獨逸의 行動에 依하여 安全과 獨立을 威脅밧고잇는 各國이 모두熱望하고잇는것이다

和平調停實現 可能性은毫無

【伯林十二日發同盟】獨政府는十二日白耳義政府에對하여 白蘭兩國의 和平提案을愼重檢討中인旨를 回答하엿는데 右는英佛兩國이 外交事例로써 白蘭共同提案을 檢討中인旨를 通告하엿기때

東久邇宮殿下 노몬한戰線서御奮戰

昨日飛行機로福岡에御歸還

【福岡電話】東久邇宮盛厚王殿下께서는 御附武官賀谷少佐를 거나리시고 十二日午前九時二十五分御召機로 新京御發午後三時三十分福岡飛行場에 御歸還 村田福岡縣總務部長、中島飛行場長、中山日航支所長等의御出迎을바드시고 支所樓上貴賓室에 御少憩하신後 市內西鐵口町榮屋旅館에 드시어 御少憩하시고 午後六時十五分博多驛發列車로 御歸東하시엇다

【東京電話同盟】恐懼하옵게도陸軍砲兵中尉 東久邇宮盛厚王殿下께서는 尊貴하신 몸으로 지난七月一日御出發以來 壯烈한 滿蘇國境노몬한戰線에서 御活躍、猛暑와 砲彈雨飛中에 御奮鬪하시어 赫赫한御武勳을 세우섯는데 陸軍砲工學校에 御入學하시고자 十二日飛行機로 福岡御着 御歸還하섯다 御父宮東久邇大將宮殿下께서는 東部防衛司令官으로서 漢口作戰을비롯하사北支 中支에 三軍을御統率하시어 御武勳을 세우섯는데 第一王子盛厚王殿下께서도 一士官으로서 御指揮하시어 國境戰線에서 御勇戰 御父子께서 함께 興亞聖戰의 第一線에 御活躍하신일은 恐懼無極한일이다 特히 中尉宮殿下께서는 酷暑의 國境에서 格別히 滿悅하섯다고 拜承되다 護者 御殿에서 記者에賜한 말슴에 「고마옵신말슴을 하섯슬때에 恐懼하옵게도 『國家全體의 聖戰이므로 皇族도 第一線에 從軍치안흐면 안된다고 余는 恒常생각하고잇다』고 말슴하시고 또 若宮殿下께서 一士官으로서 將兵과함께 노몬한激戰에 御活躍하시는것을 格別히 갑버하섯다는 말슴을拜承하고 恐懼感激하엿섯다 阿部首相의 名譽의戰死를 들으시고 遺族을기고慰勞하사 『若宮殿下의代身이되엇다』는 同情기고신 말슴을宮家職員에게 말슴하섯다 그리고中尉宮殿下께서는 壯烈한激戰에 御奮戰 酷熱의 大陸에서 御活躍하시는동안 御微恙까지 게섯스나 殿下께서는御元氣旺盛하신 恐懼하는터인데 殿下께서는 八月一日異動에 原隊御勤務되섯다 殿下께서는 十三日朝 京都驛着 桃山、泉山各山陵에 御參拜 同夜京都驛發十四日午前八時東京驛着御歸還하실터인데 京都까지宮家에서는本原事務官이 御出迎하엿다

閑院宮殿下 御歸還

【東京電話同盟】支那派遣軍司令部新設機會에 親히 中支方面을御視察하시고 지난八日 內地에御歸還하신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十二日午後五時二十分東京驛着『가모메』로 御歸還하시엇다 驛頭에는 稻垣副官、澤田參謀次長 以下參謀本部 各部長 河南陸軍次官、古莊 井上兩大將、川岸東部防衛司令官 以下 各將星이 御出迎하고 御召列車로부터 내리신 殿下께서는 御軍裝도 御凜凜하시게 조곰도 御疲勞의 빗도 拜하지안코 奉迎의 諸員에 對하사 一一御擧手의 御答禮를 賜하시면서 自動車로 곳永田町御殿에御歸還하시엇다 御殿에는 若宮同妃兩殿下께서도 御參殿 安藤子夫人、黑田侯夫妻、華頂侯夫人等 御近親께서도 御出迎이잇섯고 殿下께서는 御機嫌 御麗하시게 二十日만에 御旅裝을 푸르시엇다 近近宮中의 御形便을 보시사 御參內 天皇皇后兩陛下께 御歸還의 御人事를 言上하실 御豫定이시다

英勞働黨首近近更迭

【倫敦十二日發同盟】아틀리英勞働黨首는 一九三五年 就任以來 滿四年이되는데 同氏는 이미黨首辭表를 提出하고잇스므로 黨首更迭이 實現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 更迭이實現될時 次期黨首로서는下院議員그린우드·달톤·모리슨氏等이 가장有力한 候補로보인다

伊、機械化部隊强化

【羅馬十二日發同盟】歐洲戰爭勃發以來 伊太利政府는 中立을維持하는 同時에 國防軍의 機械化에 努力하고잇는데 今番 機械化軍備强化의 必要를認하고 十二日 뭇솔리니首相은 士官五千及 特科要務兵一萬八千에 對하여 現役入隊를 命하엿다

【十二日發同盟】駐白獨大使는 十二日白耳義外務省으로 스파-크外相을訪問 白蘭兩國元首의 共同和平提案에 對하여 獨政府는 目下 愼重檢討中인旨를 通達하엿다

大角大將一行 羅府에到着

【로스안젤스十二日發同盟】大角大將一行을태운 郵船箱根丸은 十二日午前八時 로스안젤스에入港하엿다 大角大將은 小島大佐 小野田中佐等을 帶同 吉田領事의 出迎을밧고 直時 암바사다호텔에들어갓다 밤에는 六時부터在留民의 歡迎晩餐會에臨하고 一行은 十三日午後五時出帆의 箱根丸으로 一路故國을 向하엿다 大角大將은 記者團에 歐洲觀察의 感想을 다음가치말하엿다

今次戰爭에 英獨이 다都市空襲을하지안는 것은 서로 報復의 犧牲을 避하기爲함이다 新武器出現에 關하여는 아직아무말도듯지못하엿는데 前大戰當時에 比하여 別로 進步를하지 안흔事實이다 日本은 不介入方針을 目標로 함으로 佈陣 歐洲의 防備强化에 關하여는 日本은 別로걱정할 必要는업다

英北支駐屯軍撤還 英陸軍省正式發表

【倫敦十二日發同盟】英陸軍省은 十二日北支駐屯軍을 撤還키로決定하엿고 如左히 發表하엿다

英國은 軍事的便宜上 一九〇一年北淸事變에 關한 最終議定書規定에 따라 北支에駐屯하고잇는 英軍大部隊를 撤還시키기로 決定하엿다 今後 同地方에는 治安維持에 必要한極히少數兵員이 駐屯하게될것이다 右決定은 英國과마찬가지로 北支에軍隊를 駐屯시키고잇는 各國政府에 對하여 通告하엿다

廣西省各地爆擊 報道部發表

【上海十二日發同盟】艦隊報道部 十一月十二日午後四時發表

◀中支方面戰況 一、海軍航空部隊는 前日에 繼續하여 昨十一日高郵(江蘇省北部)附近에 蠢動中의 殘敵을 爆擊하고 更히 大打擊을 주엇다

◀南支方面戰況 一、再昨十日海軍航空部隊는 武寧(江西省)飛行場을 爆擊하고 또 部隊中의 數機를 大破하엿다 그리고 有力한 航空部隊는 廣西省邕寧、潮州及 寧明附近에서 軍用倉庫群、油倉과 軍需品等을 攻擊하여 이를 燒燬或은 炎上식혓다

重慶側六中全會 豫備會議開催

【香港十一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重慶側國民黨六中全大會에 招集된 人數가 아직 決定數에 達하지못하엿스므로 不得己 十二日부터 豫備會議를 開催하여 內外政策에 對한 意見交換을 하고잇다 目下 猛烈한 攻擊을 하고잇는同時에 各分野에 亘하여 審査委員會를 組織하고 六中全會에 提出할 各重要案을 審議하기로되엇다 그런데 지금 重慶은 危局에 直面하고잇는 國共兩派의 關係를 反映하여 大會의 空氣는 매우 不安한 狀態에 잇다 卽 共産黨側은 지난八日의 朱德等 共産軍首領의 聲明에 依하여 여러가지로 主張하고 또는 不可能한 要求를 하고잇스며 더욱이 延安大會後에 發表한 共産黨宣言은 全面抗戰을 主張하면서 國民政府에의 服從 또는 蔣介石의 指導를 支持한다는 約束을 履行치안흔 全然 背信的인것이라고하여 共産黨의 無禮한 態度를 非難하고잇다

軍事豫算査定은 藏相이直接交涉

豫算査定省議는不開催

【東京電話同盟】戰時下第四年의 內外施策을 包含한 明年度豫算은 十一日 大藏省豫算省議로써 一日査定을 完了하엿는데 이것은 我國豫算의 大宗이되는 臨時軍事費追加豫算 陸海軍 新規補充計劃을 爲始하여 臨時豫算에서도 重要한 事項이 殘存하고 木豫算 民間航空擴充 國民體育管理 義務敎育八年制 實施等을 包含하고 重要事項을 留保하엿스므로 이것은 大藏省으로서 보인다 大藏省은 陸海軍豫算은 機密에 亘한 事項이 만흐므로 特히 省議의 形式을 取하지안코 靑木藏相、谷口主計局長만으로 軍當局과 査定의 交涉을 進行할 方針인데 그 計劃가 相當한 巨額에 達할것은 留保된 日에 加하여 이外에 이미 査定을 完了한 豫算의 復活要求 其他의 諸問題가 남어잇서 그 大綱은 決定되어도 事務進涉에 相當한 時日을 要하므로 오는 二十八日에 豫算閣議를 開催할는지는 疑問視되어 이르럿다 따라서 第七十五議會開會도 一月十日은 困難視되는데 大藏省으로서는 假令十日再開가 不可能하다고하면 一月十四日이 日曜日이므로 十五日開會를 目標로豫算編成事務를 進行하고잇다

各道學務課長 視學官會議

學務局에서는 明年四月부터實施할 中等學校入學者選拔法改正要項에 關하여 協議를 充分히하여 實施에 遺憾이 업도록 하고저 十五日午前九時半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各道學務課長及視學官事務協議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

自今一週間以內에 獨軍、總攻擊開始?

英本土上陸奇襲作戰도考慮

【伯林十二日發同盟】獨軍의大戰準備는 陸海空에걸처 依然急速度로 大規模로 進行되고잇는데 各地의 情報는이에一週間以內에 獨空軍은 英佛軍事飛行場에 爆擊을 하려가리라하며 一旬이못되어 陸上에서도 獨軍이 進軍하리라고 傳한다 萬一 事情의變化에따라 이期間中에 攻勢를 取하지못하게되는 境遇에는 自然天候其他 關係上 明春으로 延期될터이다 現在軍當局의 往來後方準備等으로보면 不遠한 將來에 大規模의攻擊을 豫想하게되어 英佛側은 獨逸이白耳義、和蘭에서 進擊할 企圖를 大大히宣傳하고잇스나 中立國侵犯에關하여는 獨逸도充分히 警戒하고잇는터로 大槪中立國侵犯은 하지안흐리라는 觀測이强하다 그보다도 英本土上陸에依한 奇襲作戰의 可能性及 마지노線中央突破作戰이 더만히 軍事評論家의입에 올러나리고잇다 如何던 現在 獨軍은 마지노線으로부터 後方으로 向하여 扇形으로 配置되엇다고 傳하는데 後方部隊는 모두 機械化되어 언제던지 主要한 前線에 移動할수잇도록 準備가 完了되어 進擊方向이 指定되면 그行動은 敏速하게 되리라고보인다

蘇聯要求大部分受諾 에르코芬蘭外相談

【헬싱키十二日發同盟】難關에逢着한 蘇芬交涉은 十一日의 타스通信社聲明에 依하여 更히前途가 悲觀視되고잇는바 에르코芬蘭外相은 十二日外國新聞記者團에對하여 芬蘭은 이미蘇聯의 要求의 三分之二를 受諾하엿다고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芬蘭政府는 이미蘇聯에 對하여 讓步에讓步를 거듭하여 蘇聯의主要要求를 受諾하고 蘇聯에 레닌그라드 方面의安全을 確保케하엿다 그리고 芬蘭으로서도 自國의 安全을 威脅바들 要求는 아무래도 受諾할수업는바이다 交涉은 아직再開되지안코잇스나 芬蘭代表가 莫斯科를 떠난다하여도 決코交涉의 決裂을意味하는것은아니다

英佛과伊에不即不離 希臘防備를强化

對獨感情極度로惡化

【아테네十二日發同盟】希臘은 歐洲大戰에 잇서서 結局 當分間은 英佛及伊太利의 兩勢力과 不卽不離의 態度를 持續하면서 嚴正中立의立場을 取하고잇는데 萬一에 備하여 國防充實에 努力하여 國內의 消費統制를 施行하고 物資의 貯藏을 꾀하고잇다 그리고 이미 完成한 對勃牙利國境의 小마지노線이라할 要塞線外에 最近에와서 알바니아國境線에도 强固한要塞線을 開始하여 大規模의 工事를 進行하고잇는데 이것이 完成되면 希臘의 陸上國境은 土耳其及 유고슬라비아와의 國境을 除하면 全部完全한 要塞로 保護하게 되는 터이다 他方海上防備에도 關心하고잇는데 結局 英佛에 依賴하는수 밧게업다는 結論에 達한 模樣으로 이것은 希臘의 英佛依存을 如實히 明白하다 이에 對하여 對獨感情은 獨蘇提携以來 急激히 惡化되어 土耳其와 함께 反獨感情을 보이고잇다 一方伊太利와의 關係는 前日의 友好的 復活에 努力하는 中 伊太利가 빨간中立을 强化하여 伊太利와의 關係는 自然好轉하여 여러가지 希望을 가지고잇다한다 更히 希臘과 伊太利와의 間에는 一般的好感의 空氣가 잇서 友好的 諒解以外에 不可侵條約締結의 機運이 잇지나안흘가하는 觀測은 有

農省復活要求

【東京電話同盟】農林省明年度豫算査定內容은 十一日午前一時大藏省으로부터 內示가 잇섯는데 新規要求豫算 一億四千萬圓中에 承認額은 四千萬圓에 不過하므로 農林省의 企圖하는 戰時食糧確保의 見地에서 樹立한 計劃生産의 遂行上 多大한 支障이 생기므로 十二日 各局部別의 復活要求에 關하여 協議하여 될수잇스면 同日中에라도 省議를 열고 大藏省에 對한 折衝方針을 決定하기로되엇다

朝鮮米第二回豫想道別收穫高

道別	作付反別 水稻 町	作付反別 陸稻 町	作付反別 計 町	豫想收穫高 水稻 石	豫想收穫高 陸稻 石	豫想收穫高 計 石
京畿道	一六四、〇五三、〇	二一、一五五、八	一八五、二〇八、八	一、四四〇、〇四六	一一、五五四	一、四五一、六〇〇
忠淸北道	五六、七三一、四	六四八、六	五七、三八〇、〇	七八九、七七五	八七二	七九〇、六四七
忠淸南道	九九、三八一、三	一、三四四、六	一〇〇、七二五、九	七七六、三三三	九八七	七七七、三二〇
全羅北道	九〇、七三一、三	二、四八七、〇	九三、二〇八、三	六八七、〇二二	三、〇〇五	六九〇、〇二七
全羅南道	[illegible]	一六、〇〇一、一	一三九、七三三、九	一、九六七、一三六	一八、八六九	一、九八六、〇〇五
慶尙北道	六四、四三三、九	二、四八七、八	六六、九二一、七	七五一、三〇一	二二、九七八	七七四、二七九
慶尙南道	一三三、四〇五、六	四、三三三、四	一三七、七三九、〇	一、三二七、八〇三	六、七七二	一、三三四、五七五
黃海道	一四三、六六七、八	七、八六八、七	一五一、五三六、五	二、一四四、三六一	二六、六六九	二、一七一、〇三〇
平安南道	七九、四四三、四	七、九九六、三	八七、四三九、七	九七二、〇八四	一四、六六一	九八六、七四五
平安北道	九四、九五三、五	六九六、三	九五、六四九、八	一、七七二、八四四	四、二三六	一、七七七、〇八〇
江原道	八四、一九三、一	三四四、一	八四、五三七、二	一、一〇五、三二一	一、二二〇	一、一〇六、五四一
咸鏡南道	六六、六一七、七	三九六、五	六七、〇一四、二	一、二三三、三三七	三、一七〇	一、二三六、五〇七
咸鏡北道	一七、九九七、四	—	一七、九九七、四	三四〇、三〇一	—	三四〇、三〇一
合計	一、二〇一、〇四九、三	三三、九〇〇、〇	一、二三四、九四九、三	一四、二四四、九六六	一七八、三三一	一四、四二三、二九七

山西省內共軍 續續陝西로移動

【太原十二日發同盟】重慶政府와 共産黨派의 相剋激化에 따라 山西省內中共軍의 西北移動은 繼續하여 活潑히 進行되고잇는데 最近 當地에 達한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去九月中旬에 五台山附近으로부터 移動을 開始한 賀龍의 共産第八路軍第百二十師의 主力及 寄鼠에잇던 一部는 벌서 陝西省에 들어가고 또 石樓에 잇던 林彪麾下共産第百十五師及中陽南方地區로부터 軍渡方面에 걸처 蠢動하고잇던 游擊隊도 陝西에 들어갓다고하며 孝義附近의 共産軍도 目下 盛히 西北으로 移動中인데 一方晉東北地區에서는 武鄕附近에 잇던 約一千의 共産軍이 去十一月五日頃 第八路軍副司令 彭德懷에 引率되어 沁縣西南方으로 移動하여 孝同(沁縣南方三十키로)附近의 共産軍은 九日頃西北으로 移動하고 故縣(沁縣南方二十키로)附近에 잇는 七、八百名의 共産軍이 어데로 부터인지 移動하여왓는데 모두 陝西로 向하여 移動을 繼續하고잇다 그리고 國共間의 軋轢이 今後도 아직解消치안는限 山西省內에 잇는 共産軍의 西省遁出을 繼續하여잇슬것은 當然히 豫想되는데 果然共産軍이 省外로 撤退할는지는 자못 疑問으로 消息通側의 觀測에 依하면 어느 程度의 部隊는 省內에 남어잇서 游擊工作과 特殊工作을 續行시킨다하여도 그 效果는 必然的으로 弱化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本社參觀 (十三日)

◀洪原郡 遙湖公立尋常小學校生徒七五名(引率者 金萬澤氏)

人事·集會

◀尹致昨氏 先考葬禮式會葬人事次來社

◀李鎭根氏(滿鮮產業會社常務取締役)入京人事次來社(金剛호텔投宿)

八面鋒

◇沈默二個月半의 西部戰線 獨軍드디어 和蘭國境突破?

◇水國和蘭은 洪水戰術이나 第二波蘭化로 『蘭』字부터가 惡緣。

◇和蘭은元來 배보다 배꼽이 커서 本國人口가 七百萬인데 屬領人口가 六千萬屬領面積이 本國의六十倍。

◇여차직할판에는 本國拋棄를 覺悟한다는것。

◇北歐의 猫額大本國을 버리고 東印度寶庫로 移徙도 無難事。

◇實力업는小國의 適分한살림이 禍根으로 南大洋 波浪의安寧도 難期。

◇亞細亞民族의 白人小帝國 運命을 注目할일。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十円 平和堂 京城堅志町

專賣特許 自宅에서되는일 감見本無代進呈 マルフク

桃屋의 果實罐詰 フルーツ品質第一等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東京

醫學博士 朱運動先生 實驗推奬 最新强力 鎭痛·鎭靜·鎭咳·麻醉劑 モルヒネ·コデイン·ヘロイン代用 ネオモヒナール 春信藥業社 天光製藥所 元賣

漢藥處方全集 德朝鮮漢藥普及社 忠南江景驛前

丸藥部

朝報案內 電話 ヤマトミシン 代理店 店員入用 東山莊 朝鮮住宅分讓 場所 敦岩町 價格 土地建物共一口四千圓以上一萬圓迄 黃金町二丁目五五番地 東京建物株式會社 京城支店

サンワミン

肺結核·肋膜炎 食慾增進劑

サンワミン은 從來歐米로부터輸入되던、代表的强壯劑ロッシュ會社シロリン、トニクム、パークデビス會社 パラトール、リリ會社 クレオトニク等 優秀製品의各其長點만을取擇하야 東洋補藥의代表的인 高貴蔘藥 人蔘 鹿茸의有効成分을 獨特한 科學的精密한方法으로配合하여製造한 東西綜合 最新强壯劑이다

サンワミン의 七大特長

①肺結核、肋膜炎에 卓効가잇고。
②食慾이增進되며 食事를 잘하게된다。
③三乃至四ポント服藥하면 體重이確實히늘고。
④呼吸器管을 튼튼하게하여 感氣에안걸니며。
⑤胃腸이 弱한분에게도잘 듯는다。
⑥美味香臭豊富하야 長服해도 실증이안나고
⑦血色이조화저서 健康美가發揮된다

【適應症】肺結核·肋膜腹膜炎·食慾不進·神經衰弱·早漏·産前後虛弱한婦人·消化機能障害·呼吸器疾患貧血症·虛弱兒童·其他一般虛弱

大學病院 基督病院 醫專病院 斯界專門 道立病院 醫師藥劑師 推奬處方

【包裝】五百瓦(一個月分)五圓 二千瓦(四個月分)十五圓 四千瓦(八個月分)二十五圓

【全國有名藥房販賣】

總發賣元 新興製藥所 京城府堅志町
支店及出張所 北京前門外西河沿三三七號 滿洲國圖們市春風街三〇 哈爾濱地段街二六 大阪市東區高麗橋五丁目

住宅、飯米、柴炭 三難으로 學生은下宿難擡頭

利적고 귀찬흔 下宿業고만두고 셋방놋는이만 늘어

머리둘곳업는學生들의恐慌深刻

겨울에 접어서부터 사흥의 위나살림사리에 위협을 주는 집의경 쌀값경 장작값의 한바탕은 드디어 외지에서 들어온 어린학생들의 하숙집까지 몰아넣어서 학생들을 소스라치게하고잇다—

즉 요즘 학생하숙집에서는 이익적고 힘드는 하숙업을 그만두고 그대신 집이나 방을 비싸게 세노키위하여 학생들을 내어쫏는축이 만하 초순 겨울날 외지에서 온 학생들은 거리에서 떨게된것이다

본래부터 학생하숙은 이익이박하다하여 하숙집엇기는 여간 힘이 드는것이 아니어서 중등학생중에는 좁은 한간방에 세사람씩도 들게되는경도잇어서 그불령과 비위생적인 말할것도업고 먹는음식도 요즘은 정경더나빠저서 발육왕성기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양부족문제도 적지안흔터인데 금번은 특히 집갑시 오르고 또 가을한달에 쌀이 귀해진데다가 시탄까지 비싸젓슴으로 하숙업자들은 종전대로의 하숙비를 바다서는 이익이 업다하여 하숙비를 올리거나 또는 하숙하던 집이 방을세노코리는 경향이 만하지는것이다 이때문에 요즘 외지에서온 학생들은 하숙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하숙비도 비싸저가므로 가벼운주머니에 겨울의 살림이 바람이 스며들어 큰 곤란을 당하고잇는것이다

下宿費도無理昂騰

經警과連絡·適當한對策講究中

報道聯盟談

중등학교생도들의하숙료는 평균십팔원으로 계산되고잇섯는데 최근사오원씩이올라 이십이삼원을밧는것도잇는모양으로 아무리 어더가지 물까갑이 올라다처도 대번에 이가치 올라간것은 큰문제가 아닐수업다 경제경찰과와 의론하여 적당한 방법을 연구할 생각이다

딱한事情이다

普成中學校當局談

이에대하여 보성(普成)중학교 당국자는 다음과가치말한다

지방에서온 생도들은 본래학교기숙사에 전부 수용하는것이 올흘것이나 기숙사가작아서 보통하숙집에 들게됩니다 마는그것부터 생도지도상 조치못합니다 그런데 요즘들까가비싸서 하숙비도 종래십칠원하던것이 요즘은 이십이삼원으로 올랐고 또조흔 하숙구하기가 힘들어젓다고 합니다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생도들을전부 기숙사에 너흘수잇도록 하는것이 선책입니다마는 어디그리 손쉽게 됩니까 운운

中島政友總裁 狙擊犯人逮捕

【福岡電話同盟】복강현시때에 의해서 경시청으로부터의 수배에서는 십일일밤 복강시교구정(樋口町)영양려관(榮陽旅館)에투숙하고잇는 복강시출생인 중국인 낭인(浪人)허미씨리(許美氏)를 체포하여 복강서에유치하고 신상을복강에서 경시청부장에게 인도할터인데 본인은 경시청에서 방금어림상 인 중도(中島)정우회총재 조저 범인의일당이다

殊常漢은窃盜

십이일밤종로경찰서원이 종로에서 행동이수상한 청년한명을잡은 신체수사를 하여보더니

各統制法令 質疑應答日

十五、十六兩日 間府主催로……

구월십팔일 실시된 물가총정지령이나오지 두주일이 나지낫지만 법령이 하꺼번에 쏘다저나온판게로 입밧은 거개가 어리둥절한 형편으로 최근경성부시국총동과에 부내각공장상점으로부터 여기에대한 질의(質疑)가 무수히 들어오고잇는 형편이므로 경성부에서는 오는 십오, 륙이틀동안

米重量換算決定

七分搗米 一四五瓩 一等白米 一四七瓩

지난십일에 공표된 미곡최고판매가격의 백미공정가는 용량건(容量建)이때문에 총독부에서는 중량건환산에 대하여 一、칠분도와 반도미(半搗米)는 한섬을 일백사십오키로그람 一、일등백미는 한섬을 일백사십칠키로그람으로하기로 결정하고 금명일중에 고시할터이다

各道防護課

明年에實現

총독부경무국에서는 날로복잡하여가는 국제정세에대처하여 조선의방공진을 강화하고자 명년도부터는 각도에 방호과(防護課)를 두기로하고 예산을요구하엿던바 경기、평남、함남북、경남북 유도의예산만이 인정되엿스므로 그중삼도에는 경시과장 나머지는 경부과장아래 새로운직용을세워가지고 총독부방호과와 긴밀한연락아래 방공시설을 정비하는동시에 경방단의 지도훈련에 만전을 기할터이다 경시과장은 경기、함북、경남세도가될모양이다

小運送統制强化로 合併整理必至

지난구일에 조선소운송령이 공포되엇스므로 철도국에서 십삼일에 전조선각역에 대하여 구일 현재의각운송점을 조사하여 오는이십일까지 보고하도록 지령하엿다

이법령이 공포된뒤에 새로생긴 운송점은 명년일월십오일 법령실시기 이후 석달동안밧게 더영업을 하지못하게 되엇스므로 이것을구분하고자하는것이다 그리고 면허되기로된종래의업자오백의 소운송점도 차차정치

殉國軍人의 遺影展思會

일본적십자사 경성위원부에서는 적십자조약성립칠십오년기념과적십자데ー를기회로 경성군사후원련맹후원아래 『순국군인유영전사회』(遺影展思會)를 열기로되엇다 회기는 십일월십오、륙、칠사흘동안이고 장소는 장곡천정(長谷川町)공회당인데 시간은매일오전아홉시에서 오후다섯시까지이다

경성부내의전몰군인의초상화와사진을진렬하여부민으로하여금나라를위하여 목숨을바친 귀한영혼에대하여 감사의뜻을표하려는것이므로 일반은만히 와주기를바란다고한다

세멘트購買證

大量購入만發行

경기도내 『세멘트』일반수요자에게 대한 구입증은 경기도산업에서 발행하게되는데 동산업계에서는 한기간 즉석달동안 스무부대이상수요자에게는 구입증을 발행하고 일반가정으로 한번부대씩(이십부대이하)사는것은 구입증을 발행하지안코 직접소매상에게 가서사게한다

沐浴湯의異變!

石炭不足으로營業을繼續못할形便이라고

業者側配給圓滑을當局에陳情?

일반대중의 위생기관이며그날그날의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목욕탕이 석탄기근으로영업곤란에 직면하여 당국에석탄배급 원활을 바라게되엇다

요즘은날이 쌀쌀해지며 목욕탕은 손님이 부쩍늘어가고 또 잇다 석탄은 품절이나 빽탕으로 부내 공중목욕탕에서는 종전가치 영업하기가 힘들게되어 머리를 알코잇는데 목욕탕은 일반대중의 위생상 중요한 시설이므로 영업중지를해서는 안될것이나 석탄배급이원활치못하여서는 어쩔수업스므로근업자가모여당국에 석탄배급을원활히 해달라고 진정하게될모양이다

한편당부에서는 격일(隔日)영업의 의견도 잇는모양이나 이는 업자측의 불리도 크려니와 일반대중의 불편이 막심할것이므로 문제밧기나 하여튼 현재의 상태로서는 영업이 힘들어흐른 겨울동안 휴업자가 나지나안흘까 우려된다

匪賊이出現

中江鎭署出動、二名을射殺

지난 십일일 오후세시경평안북도 중강진(中江鎭)경찰서관내 장성(長城)주재소 아록강저편제사구 은자구(銀字溝)강연덕 약육키로지점에 소수의 약수업는 비적이 몰려와 민가를약탈중이라는 급보를바든 중강진경찰서에서는 경관대가 출동하여비적과 교전하기 한시간남아에 적을리친는데 이교전에서 비적두명을 넘어트리고 소총단약등을 빼어가지고 돌아왓다

그리고 비적은 겨울을당하여 식량에 궁해서 가주국경을대에 출몰할것이므로 평북경찰부에서는 강안일대를 엄중경계중이다

作人에게拂下된國有地

弄奸부린面長

關係緣故者들이告訴와陳情

고양군숭인면장항리(高陽郡崇仁面)의주민 이십여명은 소화구년부터 근처의국유지(國有地)하천부지(河川敷地)이십만평을 개간하여 지금에는 전여석이나 조주수하는 조흔땅을만들어노핫다 그런데 작년칠월중면면장 신홍균(申興均)씨는 이들을쫏녀다가 조주수의십분지사를 바치라고하엿다 그러나 주인들은 자기네손으로 괴발 풀러난땅에서 난곡식을 그러케나히는 바칠수업다고하여 결국 이할을 납입하엿는데 그후 이개간자의 대표자이던 김시영(金時榮)씨는 개간민들에게 대하야 이땅은 결국 세무서에서 딴곳으로 팔기로결정이된것인축 그때에 우리들은 빈손만쥐고물러설것이니 그전에 우리끼리팔어버리고 소작이나엇자고하엿다 그래서 김시영씨는 가지고도잇는나누어 한목팔아가지고잇는 개간인들은 한층에 일천내지이천원에 팔아버렷다 그후개간민들은 소작인어더할걸일고잇섯는데 그땅을 샀다는 충면업의산리(山里)에사는 중면 면협의원 이영식(李泳植)씨가 농장을짓고 경영하면서 소작인도 모두 딴동네 사람을 주엇스므로 그때이롭은 도와 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때껏 그해

來日부터結核豫防週間

첫날은都市實踐日

영지봉체 결핵예방국민운동의 제일일인 십사일은 도시실천일(都市實踐日)로 경기도에서는 일제히 도내이발업자의 건강진단을하며 점차 『뻐쓰』『택시』혹은 극장 영화관 요리집 음식점등의 청결과 소독을하고 또한각고등녀학교의 생도들이 가두에 진출하여 한수구도로 공원등의 청소작업을하며 각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원등은 이날만이라도 도보통근을 여행하기로하엿다 다음경성을 비롯하여 인천 개성등도처에서 조기회(早起會)를 열어 도시에서 결핵을 쫏차버리려고 하는 일대국민운동의 서막이열린다

不遜한合同택시에

府民의不平漸高

每日가치本町署에投書遝至

지난달십오일 경성부내의 『태시ー』가합동된이래 회사의 여러가지 내부적사정으로 배차가 원활치못하여 부민의 원성이노픈다는데 최근 본정서에는 합승『태시ー』의 운전수가 불친절하다는가 위법한 경우라도 차가어디든지 나가기는하면서도 차고까지산돈님을 태우지안는다는등 투서가 매일가치들어오고잇스는데 이에관하여 좌등(佐藤)보안주임은 다음과가치말한다

투서를한것은 조흔데 무기명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되지못하여 취체할수가 업습니다 아프로 이가튼일은 전화나 혹은 직접와서 자세하설명을하여주면 엄중히 취체할생각이다

急行뻐스不許?

鐵道局、繼續硏究中

경성전기회사에서는 복잡한경성부내의교통을 완화시킬방책으로 급행뻐스(急行뻐스)운전계획을 세우고 면달전에 철도국에 그면허청원을하여 경성부민에게 얼마람기쁜소식을 전하엿는데 철도국에서는 그뻐스운전을하려는취지에는 찬성하나 아세치린의 원료인 카바이트가 부족한터이므로 함부로면허할수업다하여 방금 여러가지로 조사연구중이다 그래서 경성교통난 완화에한줄기 희망을가젓던 급행뻐스운전계획도 언제나실행될는지 아직막연하다한다

不和로飮毒

부내 공덕정(孔德町)상배팔십육번지 김수석(金壽錫)(二一)은 십이일오후시경 자기집에서 유산(硫酸)을 만히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는것을 꼿전십자의원에 떠메다가 치료중인데 죽기쉽다고 하며 원인은 가정불화라고한다

蘆台安全農村에

南鮮에서百五十戶

廿一日、大田發臨時車로輸送

총독부에서는 북지의 조선인피난민과 부정업자를 수용하여 안전농촌을 만들고자 노대(蘆台)에 백오십구만원을 던저 땅을사들여 북지안전농촌을 만들어 조선서 중선지도농가백오십호를 이식하기로 되엇는데 그들은 오는 이십일일오후남시삼분대전(大田)발림시열차로 북지에 직행할터인데 노대도착은 이십사일오후이다 각도에서 입식할농가는 다음과갓다

▲忠北一〇戶 六六名 ▲忠南三〇戶一〇五一名 ▲慶南二〇戶 七八名 ▲全南一〇戶六三名 ▲全北一〇戶七一名 ▲平北三〇戶一八九名 ▲慶北五〇戶二八〇名 合計一五〇戶八九八名

卅餘私立初等學校의 聯合學藝會開催

廿日·本社後援下府民館에서

경성부사립초등학교장회주최로 본사후원 제사회사립초등학교 련합학예회는 오는이십일 부내태평통 부민관대강당에서 오전열시부터 열리라하는데 여기에참가하는학교는 시내에잇는 사립초등학교 삼십여교로 이날의순서는 제일부 제이부의 두부로 나누어 제일부는 오전열시부터 국가합창으로 개회하고 제이부는 오후한시반부터 열릴터인데 이날프로그람에는 합창、유히、학교무용 아동극등 학교에서배운 모든재미잇는순서로 하루동안을 재미잇게 지날터이라한다

旱害救濟義捐

貴여운두아기 貯金차자本社에

부내 복아현정일번지 전병훈(全秉勳)씨의장남 인순(仁淳)과 장녀 원순(元淳)은 자기어머니가 생존해잇슬때 자기의아프로 저금해두엇던돈칠원오십전을 한해지구제금으로 보내달라고 집이일본사에기탁하여왓다

米國軍의運動精神에 滿場은오직感歎

崔龍德右隱退戰에快捷

甲子園의 日米對抗拳鬪戰

【大阪支社電話】米國산노제大學軍對 全日本의 日米對抗拳鬪戰은 十一日 午後一時부터 甲子園에서 오픈게임이 끗난後 兩軍의 入場式이잇서 關西아마츄어拳鬪聯盟會長 吉井氏의 開會辭가잇섯고 米國의 監督 포ー탈氏의 答辭가 잇슨다음 選手代表의 宣誓로써 式을 마치고 競技의 幕이 열리엇다 … 第一戰 ＫＯ로 敗한 … 崔龍德君의 隱退戰 …

의 勝敗結果는 다음과 같다

【빤텀級】×牧野(關學)判定세러ー(米)○

【페더ー級】×洪在浩(關大)判定레ー씨(米)○

【라이트級】○綠(明大)判定터이러(米)× ○廣瀨(立敎)判定카ー윌(米)×

【웰터ー級】○崔龍德 判定 킹게이드(米)×

大學龍球第二部

【東京電話同盟】關東大學龍球리ー그 慶應對千葉醫大 工大對拓大戰은 十二日午後二時부터明大『코ー트』에서 開始하바 結局 慶應、工大가 勝利하엿다 이리하여 慶應은 第二部에서 優勝케되엿다

慶應 27(3438…915)24 千葉醫大

工大 64(3123…2028)48 拓大

明大럭비ー大勝

【東京電話同盟】關東大學럭비ー明大對慶應戰은 十二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神宮外苑競技場에서 慶應先蹴으로 開始된바 結局 明大軍이 四十四對六으로 大勝하엿다

明大 44(2915…06)6 慶應

廣告

천하여 악독하고 잔인한것은 독일사람인것가치 제일대전때에 소문이 낫다 ▲그때에는 독일사람으로 전쟁할 물자가업서서 곤란한중 기름을 어들수가업서서 내종에는 총에 마자죽은자기나라국민의 시체까지 조려서 기름을뽑아서까지 전쟁을하고잇다고 전파되엇다 ▲이것은 내종에알고보니 영국측에서 독일정부가 어디까지는 비인도적행위를 한다고 악선전하기위해 만들어낸 허설로판명되엇다고 전한다 ▲그러나 도하편에는 독일국민은 자기나라를 위하는 충성이지극하다 그래서 전쟁에나가는 병정들은자기들이 죽을것가트면 시체를그대로 썩이지말고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뽑아서 전쟁에 쓰도록 해달라고햇다고도 전파되엇다 ▲이것은 한편에서 악선전을 하는것을 호의로 해석시키려고 한것가기도하나 그러타고 그런이야기가 호감을 줄수잇슬는지 의문이다 ▲하여간독일국민이 최후까지 참우기위하여 비상한노력을하고잇는것만은 비누하장에도 전표를쓰고잇다는 그만으로도짐작할수잇다 ▲과연독일국민은 그런풍설이날만큼 물자절약의정신철저하지안흐면 던가를 생각해볼필요가잇다

一洋東頭産 ニッサン洗濯石鹸 ニッサン洗剤 ニッサン化粧石鹸 日本油脂株式會社

朝光·女性·少年發賣!

補血·强壯·强精·特効劑 판토크린 (血精茸鹿花) 定價七円五拾錢 京城·樂園町 元發賣·直輸入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②二五四七番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

治腫靈藥 三仙膏 京城本舖樂園町 共生藥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五四七番 振替京城二二〇〇二番 定價 一円 五十錢 三十錢

어린이의善藥 소아간기산 小兒肝氣散 京城府阿峴町七七 製造元 普生藥房本舖

体毒に ドクトリ丸 體內의諸毒을내리고 便通을조케함 各地藥店에有함 本舖 大阪市西區四ツ橋 本林丁子堂

大學病院 撰乾方劑 調劑權有効保證 KAZEPIRIN カゼピリン 解熱完全 惡寒·頭痛 咳嗽·熱 熱 風 定價 貳拾錢 參拾錢 五拾錢 壹圓 赤玉固腸丸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鑛山調査 資金斡旋 鑛山賣買 測量製圖 鑛業手續·各種相談 朝鮮探鑛社 京城府公平町九·電光②〇九七番 代表社員 白雲起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不治아니다 血의「混濁」을어서고原因부터 고치는今津博士의新療法 今津研究所

毛根의强化榮養料비타민配劑의 메ー데포마ー드 丹頂 金鶴香水株式會社

燒酒藥酒再製加入原料大推獎 京城府龍山町三二九 京城理化學研究所 振替京城七〇〇〇番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流行歌 妓生의설음 王淑娘 개고의춤 大太平 (八六五三)

補血强壯 天馬 更生丸 銃後の守りは健康第一! 世界の神藥高麗人參と酵母を主劑とした此の特効藥は從來の宜傳物とは斷然違ふ 京城新藥社

謹告

今般府內택시ー全部의營業을解散에서 繼承經營하게되여 本日로 一切의引繼를完了하얏나이다 燃料激減인此際의創業이므로 今後여러가지로 不便하실것으로 恐縮하여마지안사오나 아모조록 提과寬容하시믈악기지마시고 더욱愛護하여주시옵기바라옵나이다 追而營業上不備한點等은 아모조록 辭讓마시고말씀하여주시믈 바라나이다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八番、

京城自動車交通株式會社

電話本局四一六六·一八一五·二四四七

學芸

朝鮮姓氏의起源및發達 (上)

一貫……義……敦一

(東)

洋에서 姓氏의起源에 對하여 考究하여 보려면 먼저支那文獻에서 차저보아야 될것이다 尙書禹貢에『平章百姓』이라한句가 곳姓字에對한 最初의記錄으로서 支那에서는 적어도三千年以前에 벌써 姓氏의區分이 있엇던것으로볼수잇는바이다 그리고 最古의 漢字典인說文에『姓, 人所生也, 古之神聖母, 感天而生子故, 稱天子, 因以從女生亦聲也』라하여 原始社會, 母性系統時代에서부터 姓字가처음起源되엿던點을 제절로 說明케되엿다. 通志엔『三代(夏商周)之前, 姓氏分而爲二, 男子稱氏, 婦人稱姓, 氏所以別貴賤故, 貴者, 有氏, 賤者, 有名無氏, 姓, 所以別婚姻故, 有同姓, 異姓, 庶姓之別, 至三代之後, 姓氏合而爲一』이라하여 支那原始社會에서, 男子는 氏를불러서 貴賤의區別을 밝혓고 女子는姓을부처서

(婚)

婚姻에 種族別을 알리게되엿다가 차차로 社會가 發達되어가면서 氏姓의 區分的界線이 업서저서 한아가되고말엇다는것을說明하엿섯다。그러고白虎通엔『人所以有姓者何, 所以崇恩愛, 厚親親, 遠禽獸, 別婚姻也, 故紀世別類, 使生相愛, 死相哀, 同姓不得相娶, 皆爲重人倫也』라하여 人類社會에서 姓을쓰게된 理由가 個人主義時代로부터 家族主義時代에 들어서면서 次次로 大家族의恩愛的感情을 노피고 他人보다 親族을 더욱親切케 하며 家族的愛와情을모르는 禽獸의境域으로부터 向上이 되여가는同時에 婚姻에 同姓과 異姓임을 區別키爲함에 잇다는것이다. 그러므로 姓을써서時代를表彰하고 種類를 區別하며 살어서는 서루사랑하고 죽어서는 서루슬퍼하고 同姓엔 서루 娶嫁치안코자 함이니 이가다人倫을 尊重이역임이라 한말이다

(倫)

二千年以前에 잇서서 이러듯家族愛를 불으지젓슬뿐아니라 親族相婚을 理的으로 嚴重이制限하엿슴은 또한 讚歎할만한일이다。그러고同書에『所以有氏者何, 所以貴功德, 賤伎力, 或氏其官, 或氏其事, 聞其氏, 卽可知, 氏, 所以勉人爲善也』라하여, 氏는本來 功德을노피고 技力을 賤케하기爲하여 官職으로 氏를 삼엇다하는데 이것이 그의名稱을 들으면 곳 그의品位를 아는同時에 사람에게善을 勸하는 資料가 된다는것이다. 例를들면 官名을쫓차서 職方氏, 太史氏 乘名을쫓차서 雜民氏, 有扈氏가잇는것이다 그러나 그도오즉 貴族뿐이 氏가잇고 平民엔 氏가업섯던것이다. 通志에『貴者有氏, 賤者有名無氏』라함이 그것이다. 그러고 春秋, 戰國時代까지는 氏가 性이 使行하는同時에 姓이 一定하지안하고 자주 變更된일도 적지안하엿섯다. 例를들어보면 孟孫氏, 仲孫氏, 叔孫氏, 季孫氏는 魯나라公族의

(氏)

稱으로서 年代의오래감을 딸아서 姓으로 變하엿고 士會가 隨에 封하여 隨氏로 變하엿스며 荀氏가 智氏로變하엿고 叔梁紇의 아들이 孔子가 되엿슴을보아도 當時엔 아즉氏族系統이 分明치안은同時에 姓도一定하지안엇다 위에 말한바와가치 支那에서는 姓의最初記錄을 尙書로부터 본다면 적어도 三千年以前에姓의萌芽가 비롯하여서 戰國時代末期 또는 秦漢時代 곳二千年以前에와서야 完定이 되엿섯다고 볼만할것이다. 그러나 우리朝鮮에서는 그보다 멧百年뒤에서야 姓을使用케되엿

(文)

섯던듯하다。家族主義의發達이支那보다좀뒤졋던까닭이다。그러서 支那文化를 輸入하면서부터야 그들을따하야 姓을使用하게되엿다 三國以前은 고사하고 三國時代初期에 잇서서도 姓을使用한것가치 써잇다。高句麗本紀第一엔『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이라하엿고 百濟本紀第一엔『其世系, 與高句麗, 同出扶餘, 故, 以扶餘爲氏』라하엿스며 新羅本紀第一엔『始祖赫居世(中略) 辰韓人以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이라하엿고 同書儒理王九年條엔『改六部之名, 仍賜姓, 楊山部爲梁部, 姓李, 高墟部爲沙梁部, 姓崔, 大樹部爲漸梁部(一云牟梁)姓孫, 干珍部爲本彼部, 姓鄭, 加利部爲漢祇部, 姓裴, 明活部爲習比部, 姓薛』이라하여 二千年以前 곳新羅初期에 三國이다

(性)

을 使用하엿던것가치 써잇다。그러고 昔脫解王條엔『初擧來時, 有一鵲, 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라하여 까치작字의 鳥部를 省略하고 昔字로 姓을삼엇다하엿스며 同王九年條엔『以其出於金櫝, 姓金氏』라하여 金氏의 得姓한原因이 金櫝에서 나온까닭이라하여 傳說的으로 그의起源을 記錄하엿다。만은그가 後人의推想的으로 傳하여 오는記錄에 지내지못한듯하다 三國史記는 지금朝鮮에남어잇는 最古의史書이다. 만은三國時代로부터 훨신뒤저서 高麗仁宗時代에 著作된記錄이다 그러므로 그中에 記錄된것이 그때의 事實이라고 보기어려운바이 다。이보다훨신앞서서 三國時代에된 金石文을읽어보면 高句麗中葉에 가장有名한 廣開土王의 陵碑文에 歷

(歷)

代先祖를 적으면서도 王統의姓을 쓴 곳이업슴을보면 그때까지도 高句麗에서 姓을쓰지안하엿던듯하다。그리고 新羅에서도 지금까지남어잇는 四碑의 眞興王巡狩碑(北漢山, 昌寧, 黃草嶺, 磨雲嶺)와 眞平王十三年에세운 慶州南山城碑등의 碑文을 參照하여보면 多數한人名이 씨워잇는中에 지금과가튼 朴氏, 金氏, 李氏等의 姓字를 하나도어더볼수업다。

世界의귀

린드벅 四面楚歌 米新聞이一齊攻擊

【倫敦發同盟郵信】米國飛行의 龍兒『린드벅』大佐는얼마전에『위싱톤』에서演說을 햇는데 그內容때문에 倫敦人의憤激을 사서問題가되여잇다 早晩間米國은米國大陸의 自由를 宣求하여 歐洲戰爭의 飛沫이뿌리기前에 버서나야한다 이것이그 要旨와이에卽刻으로 이러난것이 倫敦各紙가 特히『썬데이엑쓰프레쓰』紙는『린드버그』大佐가 一九三八年에 伯林을訪問햇슬적에 獨逸의하나인獨逸鷲章을『히틀러』總統에게서 바덧슴으로 이것을援護로『히틀러』의勳章『린드벅의 頭上에빗난다』라는題下에 攻擊을시작하여『히틀러』를 擁護하여 我帝國을 破壞하려는것이다 그가 加擔한는米國의許可업시는 參戰할수업다고하엿고『썬데이·픽토리알』은『幾百萬의 米國人은 亦是이混忙한 小兒의말을 좀럽텁하게 드릇슬것이다 그는나치쓰의 愛玩物이다 데모크라시에 하여말할 資格이업다 그가子息을개에서 찾기위하여 英國에와잇던 一年半동안의 恩을 원수로써가팟나』고까지痛罵햇다

今年度"노벨"文學賞受賞者 프란츠·E·실란파-

今年度의『노벨』文學賞은 芬蘭의『실란파-(Frans Emil Sillanpää)』에게 돌아갓다。

그는 本是中部芬蘭의『하메』에서 태어낫다。그는 次次 成長함에 따라『헬싱키』로 進出하여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醫學을 專攻하엿다。그가 만흔 知名의 人士와 或은 藝術家와 特히 詩家와 親密하게 된것은 果然『헬싱키』에 잇서서 學生時代엿다。

그러나『헬싱키』에 五年間 滯在하는 사이에 學費가 떠러저서 그는 할수업시 다시 故鄕으로 돌아갓던것이다。그가 비로소 作家로서 出發하기 始作한것은 이때부터엿다。그는 모든 困과 誘惑과 싸우기에 드디어 疲勞를 느끼엇다。그러나 그는 드디어 後日에 現代芬蘭語文學의 第一人者로서 堂堂히『데뷰-』하게되엿던것이다。처음에 그가 雜誌에 發表한『한은』『스트린드베리』『마-테링크』의 影響이 多分히 잇섯스나, 晩年에이르러 그는 從來의 文學者 傳統으로부터 全然 離脫하여서 非文學的이라 할수도 잇는 報告的形式을 取한獨特의『스타일』을 創始하여 드디어 寫實主義에 到達하엿던것이다。그가 즐겨描寫하는 範圍는 主로 그가 生長한 農村의 農民들의生活이나 거기에는 精神의 無限한 自由가잇고 또한 그의 汎神論的世界觀은 그의 纖細한 叙述가운데 完全히 溶解되어 純眞한 原始的情緖를釀出하고잇다。

그의 作品가운데 代表的인것으로서는 兒童의世界를 그린『天使의愛兒』『靑春期의 戀愛』를 그린『人生과太陽』(一九一六)이 잇고、그外에 芬蘭獨立前의 赤色恐怖時代를 背景으로 正直함으로서 最近에 不幸하여지는 한사나이의 悲慘한 一生을 그린『正直福』(一九一九)가잇스며『아이들은잠들엇다』『人生行路의사람의아들들』『大地이가까이』『사나이의길』等、長篇이豊富하다。(一記者)

同福一行……(1)…… 赤·壁·勿·染

方鍾鉉

和順에서 人夫한사람을 압세우고 勿染과 赤壁의 名所를 찾저간다

大峙에서 漸間 쉬고 萬水洞을 단녀서 無等山의 노픈 고개에 다엇다 山기슭에서는 맑고맑는날 嶺의 中턱에 올라오니 空氣는 차레 난데업는비가 쉬리락우에 요란하게 떠러진다

이튿날은 桃源이란村에 當到하야 人夫의집을 一晩맛저노코 無等山의 瑞石을 보며 主峰을 向하고 올라간다 길을 지나처서 하磵子에 다으니 생각난한 地藏庵이다 절이라기보다는 촬야리 山中茅屋이라고하는것이 나을 또지 보이고 來客이나 한두사람이 있으한 一棟이 다허무러저가는듯 남엇는데 오직생불만이 차지온 손님을 다시금 쉬어가게 차고 깨긋하다

主峰路에서 點心하고 鬥牙谷의 土窟을 차저가니 쪽구덩에 누어서 집가리 맹그러노코 二千餘年이나 崔處士가 이곳에서사다온다고한다 或 무스을 當한일이 나이잇슬까 차저더니 희끝게 보인이 古物인 수까라이다 잘 保管해두기를 부탁하고 다시 桃原에 들려 집을 차저우고 瑞石里 지내면서 부업문 들가운데쪽이 노루별가치 소사오는것을 꺽그니 물에서피가 흐르고 그後는 그만모앗든 財産을 全部 廢했다는傳說을 들으면서 赤壁까지 當到하엿다

赤壁이란 어떤곳인가

望美亭에 걸어안저 赤壁을 건너다보니 깍근듯이 느러선 바위는 그비치 히지안코 적이 붉은듯 보이니 이일홈도 아마여기서 생긴것인가한다

亭子앞 江에는 그때 亭子가 심은 一株松만 殘存하야 昔日을 말해주는듯 눕엇고 巖下에 고요히 돈 船遊客은 世事를 잊했하는듯 잠잠하다 石壁의 中턱에는 큰나무작은나무가 거이 一字를 지어 全面에 건너대고 또다시 壁에 까긴듯이 올라가다가 天工도 여기서는 힘이 들던지 細工은 못하고 대강대강 까것을 뿐이오 대패질은 못한듯 거츨다

石壁의 全幅은 西部分岩板이 세워지어 中央이 第一 때고 左右로 갈수록 차차 나저가는데 壁上엔 老松이 列立하고 사이 百日紅은 굵은 밋둥이 석은듯 검엇스니 花開만 되면 各色花草가 蕭疏하여 數百丈下一葉舟에 片片히 날린다고 한다

亭子의 誠觀으로 三冬에 鯉魚一匹을 求得하고 또 氷上에서 [illegible]를 빌어서 孝親한것이 赤壁江上 異事라고 한다

●이勝地에 亭子는 누가 지엇는가

同福邑誌에서 보면 아래와 가튼 事實이 적혀잇다。

赤壁은 그位置가 內西面瑞石里의 東南方이요 城山의 西麓이 된다。아담한 亭子는 赤壁江畔에 고요히 서서 對하고잇다。己卯의禍에 崔山斗가 이同福에 謫居하게되엇섯는데 景勝의 勝을 차저서 이곳에 이르러 이름지어 赤壁이라고하엿고 丙子亂後에 丁之而 亭子를 이江畔에 세우고 소나무가지를심거 赤松亭이라고 이름지엇고 號를 望美라고하엿다。詩人 墨客이 歡선히 차젓스니 이亭子와 이 江 이 石壁이 만호로 다 剔錄할수가 업다 하루밤을 이곳에 머므러서 秋七月旣望은 아니라정 赤壁의夜景을 마저볼까한다.

▲나의花壇 (文藝選集) 尹石重著 (內容)印度洋上에비나는南十字星, 故鄕이그리운九月, 그리운故鄕하늘, 사랑하는안해에게, 崇高한理想의代價, 人生을論하는親舊에게, 東國에桃李가滿開하다는날에, 先輩의病歇에게, 外七十六篇(實用短信) 四六版 發行所 京城府北町一六二 미모사書店 振替京城一六四一七番 定價一圓 送料

▲新年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金融組合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振替京城三二〇〇九番 定價三十錢

▲朝鮮武道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水標町二五 朝鮮武道社 振替京城二〇〇九四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食糧經濟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海上ビル 日本米穀協會事務所 振替東京三〇四二九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朝鮮鐵道協會誌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一四ノ一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演藝畫報 十一月號 發行所 大連市但馬町十八 演藝畫報社 定價五十錢 送料二錢

▲朝鮮實業俱樂部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라디오

十三日 (月)

▲午後六時(平)하-모니카二重奏 一、라·팔로마 이라디엘作曲 二、驛人의노래 엘르作曲 三、다뉴브江의물결 이바-노비치作曲 四、빗나는美酒 뜨리드리히作曲 五、自由射手 웨-버-作曲 李容永 金顯洙 李相成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平)獨唱 季節의名曲(十一月) 劉昌宣
▲同八時 (東)寫樂 (장고-)
▲同八時三〇分 西道民謠 一、山念佛 二、緣謠歌 三、자진배다라기 四、孔明歌 五、朴淵瀑布 鄭錦紅 白牧丹
▲同九時 明治大正名作라디오文庫 兵隊妹(三) 槍一羅 李白水
▲同九時三〇分 時局講座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二)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六時(大)對話 ▲同六時二五分 (城)講演(全中) ▲同七時四〇分 (東)座談會(結核對策) ▲同八時 (大)뉴-스演藝 ▲同八時一〇分 (東)時局讀本 ▲同八時三〇分 物語(京城)

十四日 (火)

▲午前七時五十分 宮城遙拜
▲同七時五十一分(東) 라디오體操
▲同十時三十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일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歌謠曲 (레코-드)
▲午後零時三十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겨울育兒講座(二)『衣服』許英肅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吹奏樂 一、變頭進行曲 타이케作曲 二、斥候의行進 체넥트作曲 三、수리의 [illegible] 四、어서자 五、圓舞曲 朴泰鉉 指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座 朴泰鉉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講演『東西의道德觀』安浩相
▲同八時 바이올린獨奏 一、바이올린協奏曲第六番長調(헨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라르고 第四樂章 알레그로 二、G線上의아리아(바하作曲) 金生麗 伴奏 李興烈
▲同八時二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歎中歌 沈相健 杖鼓 韓成俊
▲同八時五五分 明治大正名作史 라디오文庫 兵隊妹(五) 槍一羅編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六二) 金鳳姫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浪花節 ▲同六時(名)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時事解說 ▲同七時二〇分(東)時報 ▲同七時四〇分(大)講演 ▲同八時(城)浪曲 ▲同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大)小說 ▲同九時(東)時事解說

虛陽無精의速決!

待望의秘藥出現

瞬時回春의愉快!

最强力性精藥 キング·オブ·キングス

生理學博士醫學博士 羽太鋭治氏發見

余의發明藥으로靑春體로還元케하여라 (發明者) 羽太先生談

年齡은七十六才이 잇다할지라도 靑春時代와가튼精力으로 昔日의行樂을 다시맛보려고 애쓰며 長生不老하고자하는心理는 그누구나잇스며 特히 모든것이 只今부터라는壯年期인 四五十歲에 精力이減衰해저서 根氣와膽力이없고 陽萎도헐해저서 人生의使命을遂行치못하며 男子로서의最大歡樂을빼앗기고 無味乾燥하게 지낸다면 그런不幸이어디잇스랴!

人間은 醫學上으로도 六七十까지는 强健한精神과 肉體의諸機能을 完全히保持行使할수잇다는것이 證明되어잇슴에도 不拘하고 獨身時代의不自然한生活과 結婚後의無節制한精熱의濫費로因하여 아직도 前途遼遠한靑年壯年期에 無爲無力한生活로 虛되이보내게되니 이또한 기가막힐 일이아니고 무엇이리요

余의發見한 同春精秘強大藥『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 以上의말한바와가튼生殖能障害를憂慮하는 靑壯年救濟를決心으로 最新한學理와實地實驗으로 研究에研究를거듭하여 苦心한結果 一大確信을어든후 비로소發表한藥인바 本劑는 人體에가장適合한 現代醫學으로 抽出한『性ホルモン』數十種과 强精植物의有效成分만을 合理的으로配合한後에 藥効의快速發揮를目的해 其他의化學藥品을 加入하여 製劑한것이므로 服用해수분때에는 不過三十分以內로 靑春體로還元케하여 모든性的障害를 대번에解決시켜줄것을確言하노라

仰天嘆息하든陰萎가곳나엇다

具烈會

陰萎란·참으로 사람을 못살게하는症勢라고 生覺합니다 겨우 三十이 지낸몸으로서 이즘세로 苦生하오니 이런답답한 노릇이또 잇게습니까 하로하기가 煩悶을거듭하오며 仰天嘆息할뿐이엇습니다 그러든중이 貴藥의『キングス』十圓分을服用하고 全快되어 明朗한人生으로 歡喜잇는 生活을하게되엿사오니 廣告를볼적마다 疑心만하고 얼른注文을안햇든것이 至今生覺하면 잘못이라고後悔가됩니다 小生과가튼症勢로 苦生하는友人에게 말하엿더니 服用해보겟다하며 注文하여 달나하기로 小生의同服할것과合하야 十圓分二箱을 代引便으로 注文하오니 急送해주십시요 送料는 合計하야 十一圓三十錢을 同封送金합니다 (下略)

애절초절하든早漏가다낫다

崔秉[illegible]

早漏의苦痛症으로 多年間苦痛을 밧게되는것처럼 애절초절케하는것은 업을까합니다 더욱이 기가막히는것은 早漏되는 그當時의心境가 어디다比較하야 말할수업도록 氣分이不快하며 悲悵自失하리지도 만엇습니다 또한 그로만아니라頭腦는 黑暗하고 元氣가업서 제몸을 주체하기에도 힘이들지경이옵더니『キングス』를 服用하온後로는 그러케苦痛밧는 早漏가 自己로서도 놀낼만큼 五圓分으로 씻슨듯이 업서지기로 名藥中에도 名藥이라고 感服하엿습니다 요지음은 元氣도 생기고 精神도爽快해저 愉快히 지내가오니 此番에는 十圓分으로 急送하소서 藥代는同封先送합니다

먹어보면알것이다

本科學的同春劑『キングス』는 靑春力의源泉인 根源이며 第一强力한 精丸과精液의內分泌腺에 直接刺戟을 시켜『性ホルモン』의 作用을 行하야서 諸生殖能의全面的 生殖腺(靑春腺)復活素인고로 局部的이나 또는 一時的効果에만期待되는것이 아닙니다 靑年, 壯年期의 性的缺陷은 勿論이오 老年期의衰退된 生殖能力이라도 完全히强化케되어 그의活動力을促進遂行케한다 또는 一回에五粒服用으로 科學的藥効가 半時間後이면 나타나는 快速無雙한效果는 服用하는者의그누구나 感歎하는바로서 本劑야말로 내몸을無限히가뿌게하여 그날그날을 지내가는것이滋味잇게될것입니다

藥價 小箱(一〇〇粒入)二圓 中箱(二八〇粒入)五圓 大箱(六〇〇粒入)十圓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國寶堂 (振替東京七七一番)

本劑를服用해주시고 紅顏童心의精力家가되시기를 바라는바 朝鮮各道有名藥房에서 販賣하오니 指名買入하시되 萬若品切인때에는 左記總代理店本舖로 直接注文해주시면 急送해드립니다 送料는 四十錢이오나 三十二錢은 本舖에서負擔하오니 十五錢만은加算해주시되 代金引換注文時에는 送料十五錢을更에 加算해주시옵소서

活動能力의倍加

仁丹은 肉體並精神의 疲勞를恢復해서 能率增進에 非常히必要합니다

例를들면 執務、工夫 運動、行軍 等의疲勞에 당장元氣를도리켜서 精神도또爽快케됩니다

主効 疲勞恢復 口中殺菌 頭痛解消 胃腸强化 悪疫豫防

仁丹 消化と毒けし

經濟鮮說

通貨膨脹抑制策

公債消化는 政府에서 彭大한 豫算의 一部를 公債로 補充하고잇는限 他의如何한 政策과도 併行하여 遂行하지안허서는안될 問題인데 그러면 公債消化政策以外에 通貨收縮시키고 或은 [illegible] 膨脹速化를 緩和시킬 方策을 樹立할수잇슬가?

金利의引上

우선通貨收縮策의 正統派的 方策으로서는 金利引上策所謂 日銀의 割引政策이잇다 金利引上은 預金을 吸收하며 貸出을制限하여 [illegible] 取引의 獨特한妙味를 顯著히減殺시키므로 通貨의 收縮을 必然的으로 促進하는效果가잇다. 그러나 여기서 考慮해야할것은 現戰時下의 金融界에는 生產力擴充資金의 供給及公債消化의 二大目的이 賦課되어잇는것이다. 金利引上이 斷行된다면 [illegible] 그러나 가장 重大한것은 [illegible] 公債 [illegible] 따라서 金利의 引上은 膨大한 既發公債의 [illegible] 通貨膨脹防止策으로서는 有效하나 公債政策上으로는 [illegible] 金利引下를 斷行한다면 別問題이나 金利引上은 前述한바와가치 生產力擴充、公債消化促進과의 사이에 深甚한矛盾이 發生되는데도 不拘하고 最近一部論者사이에 [illegible]

預金의引出制限

다음으로 銀行預金의 一部引出制限或은 銀行의 流動資本의 運用制限等이 考慮되는데 이것은運用方法如何에따라서는 多分히 實現될可能性이 [illegible]

銀行流動資金의 運用制限

다음으로 銀行流動資本의運用制限도講究되는 一對策이다 이 [illegible]

結論

[illegible]

前年米實收高보다 四割六厘의減收

九百八十一萬餘石이줄엇다

二回豫想과 比較한것

朝鮮米第二回收穫豫想은 一千四百三十二萬三千三百四十七石으로 發表되엇는데 이것을 第一回收穫豫想高一千三百九十九萬九千二百五十二石에 比하면 三十二萬四千九十五石(二分三厘)의 增加이나 前年實收高二千四百十三萬八千八百七十四石에 比하면 九百八十一萬五千五百二十七石(四割六厘)의 大減收이다 이제昭和八年以來의 收穫高를 보면 如左하다

(單位石)

昭和八年	一八、一九二、七二〇
九年	一六、七一七、二三八
十年	一七、八八四、六六九
十一年	一九、四一〇、七六三
十二年	二六、七九六、九五〇
十三年	二四、一三八、八七四
十四年二回豫想	一四、三二三、三四七

顯著한南凶北豊

全北、慶北、七割三分七厘減收

咸南北은四割의增收

第二回米收穫高豫想을 各道別로 各前年實收와比較해보면 全北과慶北의各七割三分七厘를 筆頭로 忠南六割八分六厘、忠北六割四分七厘 京畿五割二厘 慶南四割八分九厘 全南三割八分九厘의各減收量示하여 旱害七道의 被害가큰 反面에咸南은 四割一分一厘 咸北三割七分五厘 平北九分九厘 黃海九分八厘의增收量示한것이 注目되어今年米作은 北豊南凶의 跛行狀이 甚하엿다 이제各道別二回收穫豫想高의前年 實收比較量示하면如左하다

	二回豫想	前年實收	減收額(△印增)	減收率(△印增)
京畿	一、四三一、八〇〇石	二、九七三、八〇一	一、五四二、〇〇一	[illegible]
忠北	五八〇、六四七	一、〇七八、二五四	四九七、六〇七	[illegible]
忠南	七七一、三二〇	二、一三二、一二一	[illegible]	[illegible]
全北	六九〇、〇九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一、八六六、一〇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七五四、二七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一、三四四、七六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二、一六六、二二〇	一、九六九、九六〇	△一九六、二六〇	△九・八
平南	八九八、七四五	一、九九二、〇六八	[illegible]	[illegible]
平北	一、七七七、八八〇	一、六一六、四四五	△一六一、七七五?	△九・九
江原	一、一〇六、六四一	一、二九二、九四五	[illegible]	[illegible]
咸南	一、三一五、七五七	九三〇、九二三	△三八四、八三四?	△四一・一
咸北	三四〇、三四一	一九六、三九五	△一四三、九四六?	△三七・五
合計	一四、三二三、三四七	二四、一三八、八七四	九、八一五、五二七	四〇・六

硫安配定減

增產에無影響

農林局樂觀的見解

今年度에잇어서의 硫安減產은 全國的現象이고 이로써 十月末 東京에서 開催한硫安需給協議會에서 朝鮮의配定分은 三十七萬(?)으로削減되엇는데 右에依한 明年度의 農業生產力에 미치는影響은 거의업슬것이라고 農林當局에서는 樂觀하고잇다 即 配定量은 減少되엇스나 今年은 朝鮮은 稀有의旱魃로 農家의使用한 殘留持越量이 잇스므로 朝鮮硫安需給은 明年度의 硫安需給에 잇서서는 朝鮮硫安需給 [illegible] 別로 影響이업슬 뿐더러 다른 條件에 [illegible] 順調히 進行될것이다 云云

鮮銀券膨脹

鮮銀券은 繼續膨脹되어 十三日에繼越된 發行高를보면 三億 [illegible]

李圭顯氏의 健全한抱負

『趣味는 무엇입니까?』 달려들며 대뜸 이러케무르니 참어두엇든 우숨이 타이야 터지듯 펑 한다 이것이 氏의 豪傑風이다.

『나는 八道名山巡禮하는것이 趣味올시다. 朝鮮天地에 내가 못가 본山이 거이 업다고 할수잇습니다.』

또한번 크게웃는다 꼿꼿 지 好人이 될작정인듯싶다. 登山家라고 보아그런지 二十貫이 제신넘을듯한 氏의肉體는 通常的社長型과는 달라 숩빼대 가 세게생겻다. 不老型이다.

『뭐니 뭐니해도 좀만히버러노아야되겟서요 그래가지고 지안케되지요』 氏는 이가튼 갸륵한 理想을가지고잇다.

『그러자면 지금하시는釀造業을 자버치서야지요 술이란 결코 조혼것이 아닌상싶흔데요』

『하하—술은 먹어야지요 그러나 술에게먹혀서는 안되지요』 氏는 또한번웃는다. 고 靑年들을 健全한 强壯한 肉體를가게 敎育을 시키고싶습니다 이래야 남에게 무얼로나지

正米市場價格

取引所價格準用

十日에公表된 米穀公定價格은 取引所와 一般取引價格이오 正米市場價格은未發表이엇는데 右에對하여 總督府農林局에서 硏究中이던바 正米市場의 最高價格은 取引所의最高價格으로써準用키로決定하고 十三日關係方面에 右旨를 通知를發하엿다

日產南浦工場分離

日產化學의 鎭南浦工場은 昨年着工以來工場建設이順調히進展되어硫酸及過燐酸製造工場은明春에操業을開始하게되엿는데 이에對應하여 日產化學에서는 同工場을 分離獨立시켜 朝鮮日產化學工業株式會社를 新設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 新會社는資本金五百萬圓의 豫定으로 目下日產化學本社에서 準備中이다또 同工場의 規模는 過燐酸七萬噸 [illegible] 으로 되어잇다한다

九月末貸出高

比前年三割減少

米穀應急資金

米穀課調査=九月末에잇서서의 米穀應急資金에 依한米穀貸金貸出高는 玄米換算 五萬八千三百三十石、百四十一萬三千四百九十五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三割前後의減少量보이고잇다即

◆融資數量 (單位石)

	九月末	前年同期
玄米	三、〇七〇	三四、三一〇
正租	八六、九二〇	一二〇、一六六
計	五八、三三〇	八六、九二〇

◆融資金額 (單位圓)

玄米	三一〇、七二二	一、〇二六、二四九
正租	一、〇二三、七八四	九九〇、四三九
計	一、四一三、四九五	三、〇一六、六八九

朝鮮內預金利下

明春實現豫想

朝鮮內의 預金利下는 金利水準化의 進展과 濃化된 朝鮮內의 金融緩慢으로 更年과함께實現必至로되엇는데 今次의利下는 如左한 特色을가질것으로보인다

一、現在乙銀利率과 甲銀의利差는 三分六厘와 四分一厘로되어잇서 此間五分의差가잇고內地의 率과比較하여도 甲銀은 三分差이고 乙銀은六分差이다

二、乙銀의 이開差는 過去의朝鮮內普銀의 弱體時代의遺物이고 內地甲乙銀間의 二厘開差와가치되는것은 어려울지라도 三厘乃至四厘의 引下를豫想되는 外에 甲銀一厘乃至二厘、乙銀三厘乃至四厘의 引下를豫想이 [illegible] 는 明春에 着手하여 完成하기로 되엇다

米英크로스激動對應

對英爲替協定改訂

【東京電話同盟】最近米英크로스가大幅의 浮動을繼續하여 直先(現物과三個月先物)의 開도四仙以上으로 擴大되엇스므로 現行對英爲替協定에依하면 我爲替銀行은 카버가 엇기어려워 今後크로스의 動向如何에따라서는經營上或은 綿織輸出業의 買入을躊躇하지안흘수업는 事態에이르렷다고 豫想케되엇다 따라서市中爲替銀行代表者는 十一日午後零時半부터 正金東京支店에 參集하여 協議한結果 新事態에即應해서 現行對英爲替市勢細目協定에改正을加하여 十三日부터이것을 實行하기로 決定하엿는바改正要點은如左하다

一、現行協定에依하면 對英電信買市勢는 電信賣市勢의 三十一分一片高로되어잇는데 米英크로스가大幅浮動을 거듭하는 現狀에잇서서는 이額로선 銀行으로서 카버ー를取할수업스므로 이것을三十二分三片으로 擴大하여 餘裕가잇게하엿다

二、現行協定에잇서서 先物賣市勢는 機會的으로二個月마다三十二分一片高로定하엿는데 이直先의開를 大體二仙으로보고 米英크로스의直先의開가 顯著히 擴大된現狀에는 即應치못한다 따라서 今回는 米英크로스直先의開의 程度에應하여 十仙마다 限月에依하여 現物과의 開를算出하고 對英의市勢의 直先의開를 合理化하기로되엇다 또右協定改訂의 結果 綿織輸出手形의 買入市勢는 輸出業者에對하여 多少不利하게 되는데 右는 크로스激動에 對한

全朝鮮의 手形交換

十月中大增加

京城手形交換所調査 十月中의 全朝鮮手形交換高는 二十九萬一千四百十三枚 一億九千六百七十一萬八千六百十三圓으로 前月中에比하여 一萬四百七十枚 四百九十九萬六千十四圓 前年同月에比하여 四萬二千百五枚 一億一千九十四萬九千百五十四圓의 各各增加인데 各地別比較는如左하다

(單位千圓)

	十月中	前年同期
京城	一〇一、七六七	七七、〇〇〇
仁川	七、四四四	[illegible]
釜山	三〇、五四〇	二二、二〇四
平壤	一五、七七一	一〇、一八五
元山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南浦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九六、七一八	[illegible]

朝鮮運送据置

朝鮮運送에서는 明十日午後一時부터 決算重役會를開催하고 定時總會는 來三十日午後一時부터 同社에서 開催하는데 附議事項은 一、十四年下期 決算及利益金處分의件(七分配据置) 二、重役改選의件이라한다

新式燒酎

原料準備決定

新式燒酎의 原料問題는 過般來原料統制會社에서 總督府、企畫院과 折衝中이더바 如左히正式으로決定되엇다

一、糖蜜과 折衝한結果 豫定대로 三千萬斤의移入을確保

二、朝鮮甘藷、濟州島의甘藷는價格關係로서 二百萬貫乃至三百五十萬貫을 特約買入키로決定

三、以上으로 約七割의原料準備가 되엇는데 殘額은 麥酒粕甘藷그他乾燥蒸餾로準備中

都市經營羅津進出

朝鮮都市經營에서는 釜山進出에 뒤이어 今回羅津에서 滿鐵과 特約하고 代用舍宅의 建設에 進出키로 決定하엿다 이것은一般住宅百戶 工費百萬圓으로 大林組와特約하엿는데 工事는 明春에 着手하여 來年七月에는 完成하기로 되엇다

北電社長問題와 遞信當局의意向

北鮮合同電氣社長問題에對하여는 會社側에서 只今까지도 問題가 繼續되고잇고 米三十日總會까지에는 豫斷을不許할 狀態에잇는바 當局의意向은 現下時局下에잇서서 決戰投票까지 行할과如한 態度는자미롭지 못하고 北鮮合同電氣는 兩鮮合同電氣와 그組織을달리하여 有機的組織으로되어잇서 圓滿히解決할것이라한다 去般會社側으로부터 當局의方針을물은때에는 社長은 兼職者가 就任할것이 아니고 專任社長을둘것이라고 內示한일도잇서서 萬若會社側이 紛爭을醸成함과가튼 境遇에는 遞信局으로서 斷乎한措置를行할것이라한다

朝鮮窯業無配

朝鮮窯業에서는 本月十三日開催된 株主總會에서 [illegible] 經營不振으로 無配로 決定하엿다 [illegible]

弘中富平工場供覽

弘中商工會社의 富平工場工事는 順調로히進捗되어 本年末에 完成되엇스므로 來十八日 官民多數를 招待하여 工場諸施設을 供覽하고 竣成式은 全部完成되는 明春늦게 하여 擧行하기로되엇다고

第十四、五回 貯蓄債券賣出

全朝鮮郵便局及本支店及同代理店에서 來十一月十一日부터 同月末까지 第十四回及第十五回 貯蓄債券을 賣出키로되엇는데 今回의賣出期間은 때마침 年末賞與그他諸手當의 授給時期에 際하고잇스므로 賣出總額도 從來에比하여 만코 郵便局에서 五十萬圓 銀行에서 五十萬圓都合 百萬圓을 賣出하기로되엇다 發行條件은 從來와不變이나 第十四回貯蓄債券은 一枚의賣出價格十圓으로 割增金은 一等千五百圓、二等百圓、三等十圓 또第十五回貯蓄債券은 一枚의賣出價格五十圓 割增金은 一等七百五十圓 二等五十圓 三等五圓으로되어잇다한다

寸鐵

▼…主義新聞은 戰後不合의臨時에서 一齊休業.

▼…現在의 組織會社에 公定價格은年末까 千三百圓台였을때의 價格

▼…不可不得. 公定價格을引上할수밧게업거니 二、三割가령의高價 改正을볼모양

▼…前例가 [illegible]

市場感

株…例에依하여 雜株高의 支持으로 東新은五十六圓臺로上昇▲그러나 上回臺을一氣에拔하지못하는것을보면 宗余히 上放分枝되엇다고는볼수업는모양▲週의 爆破事件에 對하여는 推測의이나 如何든지 것을對英工作에 利用할수잇다 分明하니 大陸戰爭에의一步를加하는것▲長期戰으로 軍需產業아조로 米價高로肥料株가 買進된다하니 株式『인프레』到來는 早晚間必至?

今日財界 十三日

◆米穀 (單位錢)
玄米(合銀坊主四等) 石 四八・〇〇
七分搗白米(小賣價) 同 四〇・四〇

◆雜穀 (單位錢)
	今日	比前日
滿粟(滿洲) 百斤	一三・〇〇	不變
大豆(三等) 一石	二〇・〇〇	不變
大麥(秋) 一石	一三・〇〇	一〇高
小麥 新舊等石	三一・三〇	一〇高
京城金(匁買)	一四・〇〇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前止
朝東新	一一三・五	一高
鐘新	一二五・四	四低
鐘紡新	一一三・六	七低

◆商品 (先限單位錢、厘)
	今日後止	比前日前止
大阪綿布	四〇・〇五	一五低
棉花	六六・六五	一〇高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鮮銀新	四一・三〇	殖銀	九〇・〇〇
殖銀新	五六・〇〇	京春鐵	四二・〇〇
朝鐵	六六・五〇	同四新	三五・一〇
金剛電	八〇・〇〇	同新	三五・五〇
京春鐵	四〇・五〇	漢水電	三六・〇〇
京電新	三八・五〇	西電	六六・五〇
南電	三七・〇〇	中央無盡	[illegible]
國產自	二九・五〇	製鍊	四四・〇〇
無煙炭	六六・〇〇	小林新	[illegible]
全羅鑛	二三・五〇	三陟開	[illegible]
마네新	二四・五〇	朝紡新	[illegible]
朝石	六六・〇〇	同新	[illegible]

株式 續進後에 一崩落

今日의市勢 十三日

前場 軟進 一休後今朝는東新一圓六十銭高인百五十六圓七十錢新九十錢高인百十八圓五十錢鐘一圓一十錢高인百八十一圓六十錢에續進되어 頭重한感을주다가 結局 [illegible] 東新은百五十六圓二十錢 鐘新百十七圓九十錢에一齊低價大引

後場 反落 後場은 東新一圓低인百五十五圓二十錢 鐘新六十錢低인百十七圓四十錢 鐘新百十七圓(?)에 [illegible] 東新은 [illegible] 繼續下落되엇다

一氣棒上不許

休日明에는 [illegible] 鐘株는 東京에잇서서의 雜株高의 惡材料 [illegible] 한 [illegible] 一日에 [illegible] 하고 드디어 [illegible]

肥料機械株高

淸算主力의 續進으로 雜株도 肥料株、機械株를 中心으로 買氣가 强하여 神戶新은 五十九圓、電化新은 十七圓五至 一圓五高이엇고 炭礦株도 强調를呈하엿다 朝鮮物로서는 連月買進되는 朝鮮燐寒은 利喰物이 만허 一服狀態로되어 五、六十錢가량의 下押을보이어 十九圓가량이엇고 製鍊、國產自動車等은 依然堅調不失이엇다

物價 雜穀上進

節米運動의 進展에따라 雜穀에對한 需要는 去益旺盛한것이잇는데 이로因하여 雜穀價도 强調를 呈하고잇는것이 注目된다 即 六麥은 秋麥 春麥이 모두一圓高인 十五圓 十三圓으로되고 目前 浮動商狀을 呈하고잇던 小麥은다시 上昇되어 沙里院 新穀이 모두三十一圓二十錢高인 三十一圓四十錢高인五胡麻도 奉天物이 七十錢高인 十二圓七 八面城은 二十錢高인 五十一圓七十錢 부르고잇다.

海外經濟 十三日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大一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東京卸賣 十三日

◆白米 (一石、單位錢)
◆鮮白米(京城小賣相場) [illegible]

◇綿織物 [illegible]

◇本綿物 [illegible]

◇毛絲 [illegible]

◇石炭 [illegible]

◇石油 [illegible]

◇木材 [illegible]

◇紙物類 [illegible]

◇塗料 [illegible]

◇牛皮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棉花 / 綿布 / 生糸

[illegible]

株 三田原取引店 京城府 黃金町 營業案內進呈

三國志 【12】

韓龍雲 譯 / 熊超 畫

宦官의禍 (二)

그것은 사마 반추(潘隱)이엇다. 하진이 크게 놀래어 집으로 몰아와 대신들을 불러서 회합을 다 죽이고자한다

회합의 권세가 중엄(重嚴)이 때문부터 비로소서 원조정에퍼젓는데 어찌능히 다죽이리오 일이 잘못되면 반드시 가족을 멸하는화가잇을것이니 자세히 생각하라.』

하는 사람이 잇섯다 하진이 그사람을보니 전군교위(典軍校尉) 조조(曹操)엇다 하진이 꾸짓되

『너가튼 적은무리가 어찌 조정의 큰일을 알리오』

하고 정히 주저하더니 반은 이가 와서

『임금이 이미 돌아가섯는데 건석이 십상시와 상의하고 숨기어 발상치 아니하고 그짓 하국구(何國舅)를 불러 호환을 끈코 황자 협(協)을 세워 임금을 삼고자한다』

하더니 말이 맛치못하여 곳 들어와서 뒷일을 정하자는 사명이 이르거늘 조조가 말하되

『오늘일은 마땅히 먼저 임금의 자리를 바루잡은 연후에 도적을 처치하자』

하거늘 하진이

『그러면 누가 감히 나로더부러 임금을 바르고 도적을 치리오』

하니 한사람이 나서서

『원컨데 정병오천을 주면 궁중에 들어가 새임금을 세우고 환관을 다베어서 조정을 맑히고 천하를 편안케 하겟다』

하거늘 하신이 그사람을 보니 (司隷)교위 원소(袁紹)자는 본초(本初)엇다 하진이 크게 기뻐하여 어림군(御林軍)을 가준뒤에 원소는 갑옷을입고 압서고 하진은 하옹、순유、대래 (何顒、荀攸、鄭泰)등 대신삼십여인을 이끌고 따라들어가서 영지의영구아패 나아가 태자 변을 세워 황제위에 나가게하고 백관이 예를 마친뒤에 원소가 궁중에 들어가 건석을 잡으라하니 건석이 대겁 동산으로 다라나다가 중상시 파중에게 죽고 건석의 거느렸던 금군(禁軍)은 다 귀순하엿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하여 환관이 당을 맺고잇스니 오놀 형세를 따라서 다베이자한데 장양등이 그일을알고 하후에게 고하되

『처음에 파롤내어 대장군을 해하라자는 건석이 하사 남은 이오 신등에게는 판계가 업던 일 이온데 이제 대장군이 신 소의말을 듯고 신등을 다베이고자하니 원컨데 불상히 여겨 주사이다.』

하니 하후가

『너의는 근심치 말라 내가 맛당히 너의등을 보존하리라』

하고 하진을 불러 가만히 이르되

『나와 네가 한미한 출신으로 장양등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러한 부귀를 누리리오 이제 건석이가 잘못하다가 죽엇거늘 네가어찌 남의말을 듯고 환관을 다죽이라 한느냐』

하진이 그말을듯고 나와서 말하되

『건석이 나를 해코자 하엿스니 가히 그가족을 멸할지나 그나머지는 망영되히 죽일것이 업다』

하니 원소가 말하되

『만일 풀을베이고 뿌리를 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몸을 죽이는 근본이 되리라』

하엿스나

『나의뜻이 이미 결정하엿스니 다시 말하지말라』

하는 하진의말에 여러사람이 다 물러나왓다.

다음날에 태후가 하진에게 상서사(尚書事)를 명하고 그나머지도 다 벼슬을 주엇다.

동태후가 장양등을 불러드려 말하되

『하진의 누이는 처음에 내가 거천한것인데 이제 그아들이 황제가되고 안팟의 신하들이 다 그심복이 되니 권세가 너무 거우니 나는장차어찌하리오』

하니 장양등이 말하되

『폐하께서 기회를타서 발을 느리고 정사를 들으사 황자협을 봉하와 왕을 삼으시고 국구 동중(董重)에게 큰벼슬을 주어 병권을 맛게하고 신등을 중하게 쓰시면 큰일을 가히 도모하리다』

한데 동태후가 크게 기뻐하여 다음날에 황자 협으로 진류왕(陳留王)을 봉하고 동중으로 표기장군을 삼고 장양등으로 다조정 정사에 참예하게 하엿다